

# 清代 士人和 男旦 관계 연구

- 『品花寶鑒』을 중심으로 -

최윤주\*

## <目 次>

1. 들어가는 글
2. 『品花寶鑒』에 나타난 士人和 男旦 관계
  - 1) 梅子玉과 杜琴言: 才子佳人 관계 계승
  - 2) 田春航과 蘇蕙芳: 書生과 妓女 관계의 변주
  - 3) 豪客과 黑相公: 철저한 상업적 관계
3. 『品花寶鑒』에 나타난 士人和 男旦 관계 서술태도 분석
  - 1) 감상자 입장에 입각한 관계 묘사
  - 2) 감상물로서의 名旦: 이상적 여성상 투영
  - 3) 배우에 대한 멸시
4. 나가는 글

## 1. 들어가는 글

明 중후기부터 남성 동성애는 쾌락적 풍조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었으며, 당시 사회 전체를 풍미하였다. 清代 이후, 희극업의 흥성과 더불어 사대부와 남자 배우(男旦)가 보편적인 남남 관계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 여러 작품에서 청대의 남성 동성애 현상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그 중 시대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으로 陳森의 『品花寶鑒』을 들 수 있다.<sup>1)</sup>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강사

1) 『품화보감』에서는 男旦들을 “相公”이라 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호칭은 특히 京師에서 유행하였던 것으로, 대략 乾隆 중후기부터 다른 호칭(小唱이나 小官)은 점점 없어지고 相公으로 고착화된다. 상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吳存存, 『清代相公考略』, 『中國文化』.

『품화보감』은 清代 陳森의 작품으로, 총 60회에 이르는 장편소설이다. 魯迅은 『중국소설사략』 중 “청대의 협사소설” 부분에서 이 작품에 대해 “화류계의 인물 이야기를 전서의 중심 줄거리로 삼아 수십 회에 이르는 장편으로 만든 것은 대개 『품화보감』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배우를 기록하였을 따름이다.”<sup>2)</sup>라 하였다. 노신이 말한 바와 같이 『품화보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靑樓에서 벌어질 법한 일들이다. 노신은 당시 사회에서 남자 배우들이 기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협사소설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작품은 청대 梨園 생활과 함께 당시 남성 동성에 풍조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독특한 풍격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 작품을 『홍루몽』과 견줄만한 言情小說의 걸작이라고까지 여겼다.<sup>3)</sup>

이러한 문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화보감』에 관한 국내의 연구 상황은 미진한 편이다. 관련된 논문으로 韓宗完의 「〈品花寶鑒〉의 社會描寫及 藝術風格」(『中國人文科學』 37권, 2007년)과 「중국의 동성에 문화와 〈品花寶鑒〉」(『中國人文科學』 33권, 2006년)이 있는데, 이들 논문은 중국 고대 동성에 문화를 배경으로 한 작품 속 남성 동성에 현상을 분석하였다. 李受珉의 「《品花寶鑒》小考」(『中國學論叢』, 21권, 2006년)에서는 원림의 묘사, 인물 설명, 기녀 묘사 등을 통해 남방 출신 작가가 북방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남방문화에 대한 그리움의 심리를 고찰하였다.

중국의 연구 상황은 국내와 달리 활발한 편이다. 尙達翔의 「說《品花寶鑒》」(『明清小說研究』, 1988년, 제3기)과 「談反映梨園生活的《品花寶鑒》」(『南都學壇』, 1994년, 제1기)을 필두로 하여, 작품의 창작시기 고찰<sup>4)</sup>, 등장인물에 대한 분석<sup>5)</sup>, 남성 동성에 풍조와 연관된 문인들의 심리 및 남단의 여성화 심리 분석<sup>6)</sup>

1996년 제2기 참조.

2) 魯迅, 『魯迅全集第九卷—中國小說史略』, 人民文學出版社, 2005, 264쪽.

3) 吳存存, 『明清社會性愛風氣』, 人民文學出版社, 2000, 205쪽.

4) 관련 연구로는 張青青의 「《品花寶鑒》的成書年代」(『當代小說』, 2007년, 제3기), 姜秋菊의 「也談《品花寶鑒》的成書年代——兼論陳森的生卒年」(『明清小說研究』, 2011년, 제1기), 許雋超의 「《品花寶鑒》成書時間新証」(『文獻』, 2016년, 제2기) 등이 있다.

5) 관련 연구로 花靖超의 「《品花寶鑒》中的女性形象分析」(『綿陽師範學院學報』, 2011년, 제3기), 武云霞의 「同病相怜与骨子里优越感——交織于《品花寶鑒》名伶形象中的士人心態」

등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들 또한 주인공인 매자옥과 두금언 위주이며, 조연이라 할 수 있는 전춘향과 소혜방의 관계를 전적으로 다룬 논문도 적은 편이다. 당시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는 호객과 후상공의 관계를 언급한 논문은 하나에 그치고 있어, 작품 속에 나타난 인물 유형의 연구가 주인공들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작품에서 그리고 있는 士人和 男旦의 인물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가 진삼은 士人 梅子玉과 名伶 杜琴言, 名士 田春航과 名伶 蘇蕙芳의 관계를 주로 묘사하였으며, 豪客과 黑相公 등의 인물을 부차적으로 묘사하였다. 진삼은 이 세 유형의 관계를 통해, 현실 생활을 적극 반영하여 묘사하는 한편,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단의 모습을 그리려 노력했다. 작가가 그려놓은 세 유형의 인물 유형 분석을 통해, 청대 유행했던 사대부와 남단 사이의 남성 동성에 관계, 그 외의 현실 생활 속 호객과 후상공들의

(『內蒙古工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제1기), 「柔媚誰分弁與釵——論《品花寶鑒》中男性優伶的陰柔美」(『語文學刊』, 2011년, 제5기), 「通天主教的門人——《品花寶鑒》中的黑相公」(『時代文學(下半月)』, 12월), 「梨園物色, 定有知音——《品花寶鑒》中的真伶與義伶略論」(『內蒙古工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2년, 제1기), 「名士傾城合一身——由《品花寶鑒》看清代男伶的“文士化”」(『文學與文化』, 2012년, 제3기)가 있고, 趙慧研의 「談《品花寶鑒》中的名士形象」(『遼寧師專學報(社會科學版)』, 2015년, 제4기)와 「《品花寶鑒》中優伶形象的女性化性別意義」(『牡丹』, 2015년, 제6기) 등이 있다.

- 6) 관련 연구로는 盛志梅와 付新營의 「試論《品花寶鑒》藝術品位上的時代特色」(『齊齊哈爾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1년, 제4기), 梁建欣의 「《品花寶鑒》性別倒錯現象成因分析」(『華僑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3년, 제1기), 邱遠望의 「《品花寶鑒》在才子佳人小說模式之外的創新」(『江西教育學院學報(社會科學)』, 2005년, 제5기), 吳艷峰的 「此愛綿綿——淺探《品花寶鑒》中的情感」(『中國校外教育(理論)』, 2007년 11월), 黃勇生的 「男性情愛的想象與期待——論《品花寶鑒》」(『宜春學院學報』, 2008년, 제1기), 黃海燕의 「《品花寶鑒》體現的清代文人狎伶心態」(『湖南工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8년, 제5기), 閔月英과 閔秀梅의 「建構與想像——從《品花寶鑒》的性別倒錯現象看性別的意義生成」(『濰坊教育學院學報』, 2009년, 제4기), 陳靜梅의 「《品花寶鑒》的女性化敘事策略及性別政治」(『凱里學院學報』, 2011년, 제2기), 吳萍萍의 「論《品花寶鑒》對同性戀題材的突破與局限」(『文學界(理論版)』, 2011년 8월), 盧迪의 「就《品花寶鑒》看晚清小說中被壓抑的現代性」(『青年文學家』, 2013년, 제17기), 歐陽雨浩의 「由《品花寶鑒》窺男風盛行及其成因」(『赤子(中旬)』, 2014년 3월), 武云霞의 「軟紅十丈春風甜, 不重美女重美男——由《品花寶鑒》看清代士伶的性別倒錯」(『中華文化論壇』, 2014년 6월), 張國培의 「《品花寶鑒》的伶旦之美與清代士人花心態——以杜琴言為例」(『內江師範學院學報』, 2017년 제1기)를 들 수 있다.

적나라한 관계 또한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그 속에 나타난 작가의 서술 태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2. 『品花寶鑑』에 나타난 士人과 男旦 관계

소설은 士人 梅子玉과 名伶 杜琴言 간의 애정 이야기를 위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이외에 名士 田春航과 名伶 蘇蕙芳의 관계, 豪客들과 黑相公들의 관계 등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매자옥과 두금언의 관계는 才子佳人소설의 재자와 가인 사이의 관계를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작가는 이 둘 사이의 사랑을 지상 최대의 순수한 사랑으로 그리고 있으며,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 적극 찬양한다. 名士 田春航과 名伶 蘇蕙芳의 관계는 실의에 빠진 서생이 기녀의 도움을 받아 장원급제하는 유형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는 청대에 널리 유행하였던 士人 畢秋帆과 名旦 李桂官의 이야기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sup>7)</sup> 이계관은 낙담하고 있던 필추범을 장원급제할 수 있게 도왔다 해서 ‘壯元夫人’이라 불리게 된다. 작품 속의 전춘항과 소혜방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소혜방이 실의에 빠진 전춘항을 적극 지원하여 장원급제를 시킴으로써, 당시 유행하던 장원부인 이야기와 매우 비슷한 플롯을 가진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사대부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남단의 형상을 적극 반영한 모델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梨園에 드나드는 호객들과 이를 손님으로만 상대하는 黑相公들의 관계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다. 호객들은 남단을 감상품 혹은 매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이를 대하는 상공들 또한 자신의 재주가 아닌 색을 팔아 돈벌이를 하려고 온갖 교태를 떠낸다. 사실, 호객과 후상공의 관계야말로 당시 사회의 진실한 면을 보여주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7) 매자옥과 두금언, 전춘항과 소혜방에 투영된 전통문학의 계승관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王德威, 『想象中國的方法—歷史·小說·敘事』,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98의 “寓教于惡: 三部晚晴狹邪小說”부분 참고.

1) 梅子玉과 杜琴言: 才子佳人 관계 계승

매자옥과 두금언은 작품의 주인공으로, 둘의 이야기는 전통시기 才子佳人的 서사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才子에 해당하는 매자옥과 佳人에 해당하는 두금언은 “첫 눈에 반함—시련을 겪음—시련을 딛고 원만한 결말을 맺음”이라는 전형적인 재자가인 서사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이와 더불어, 작가는 두 주인공을 자신만의 완벽하고 순결한 재자와 가인의 모습으로 형상화 하였다.

매자옥은 소설 1회부터 등장하는데, 작가는 매자옥의 집안을 설명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그의 친가와 외가 모두 문인 집안이며 매자옥의 출생 또한 모친의 상서로운 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sup>8)</sup> 뿐만 아니라 매자옥은 외모, 학식 또한 부족한 부분이 없고<sup>9)</sup>, 나쁜 버릇 하나 없이 글공부에 매진하는 선비였다. 이 때문에 顏仲淸과 史南湘과 같은 친구들이 배우들을 폄평해 놓은 책을 보며 찬미할 때에도, “이 무리들(배우들)에 대해 논한 것이라면 이 문장은 정말 이깁습니다. (중략) 어찌 진창에서 나왔으면서 더럽지 않고, 거센 물결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sup>10)</sup>”라며 당시 문인이 배우와 교류하는 시대적 분위기에 비판적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8) 陳森, 『品花寶鑒』, 2쪽. “매자옥의 아버지는 매사섭(梅士燮)으로 강남 금릉 사람이며, 권문세가 출신이고, 한림원의 시독학사(종5품직)에 제직 중이다. 할아버지인 梅鼎은 이부상서(종1품)를 역임한 적이 있으며, 그 아버지(매자옥의 증조할아버지) 羹調는 문화전 대학사(정1품)를 지냈다. 어머니의 집안도 무시할 수 없다. 매자옥 어머니 顏氏 또한 금릉 대가 집의 여식으로 좌도어사(정2품)를 지낸 顏堯臣의 딸이며, 翰林院編修(정7품)인 顏庄의 누이이다. 안씨가 29세가 되던 해 꿈에 神人에게서 옥을 받고 매자옥을 낳아, 이름을 자옥이라고 하였다. (這人姓梅, 名士燮, 号鐵庵, 江南金陵人氏. 是个閥閱世家, 現任翰林院侍讀學士, 寓居城南鳴珂里. 其祖名鼎, 曾任吏部尚書; 其父名羹調, 曾任文華殿大學士, ……夫人顏氏, 也是金陵大家, 爲左都御史顏堯臣之女, 翰林院編修顏庄之妹, ……二十九歲上夢神人授玉, 遂生了一个玉郎, 取名子玉, 号庚香.)”

9) 전개서, 2쪽. 매자옥의 외모는 “잘 다듬어 놓은 옥과 같이 생겼으며, 순금과 같은 기질을 타고 났고, 아름다운 구슬과 같은 고귀함이 있었고, 어여쁜 달이 산봉우리에 올라 있는 것 같은 광채가 났다. (生得貌如良玉, 質比精金, 寶貴如明珠在胎, 光彩如華月升岫.)”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그의 학식에 관해서는 “하늘이 준 신기함으로, 그 속에 두수[이십팔수 여덟 번째 별자리]를 가지고 있어, 공부한 지 10년 밖에 되지 않았으나 만 권의 책을 외울 수 있었다. (而且天授神奇, 胸羅斗宿, 雖只十年誦讀, 已是万卷貫通.)”라고 설명하고 있다.

10) 전개서, 10쪽. “若論此輩, 真可憐了這副筆墨. …… 豈有出污泥而不滓, 隨狂流而不下者.”

한편, 다른 주인공인 두금언의 출신에 대해서는 소설 5회에 비교적 간략히 묘사하고 있다. 두금언은 매자옥처럼 좋은 집안 출신은 아니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났으며, 글재주도 있는 편이라 계속 글공부를 하던 서생이었다. 성격을 보면 고고한 면이 있었는데, 이러한 두금언이 부모 모두가 죽고 이원에 팔리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그는 몇 번의 자살시도를 하게 되고, 심지어 희반의 다른 무리와는 엮이려 하지 않는다. 다른 이의 눈에 띄어 경사로 왔을 때도,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는 대신, 자신의 처지가 더 악화되었음을 걱정한다.

이 둘은 서로를 만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심정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매자옥은 두금언을 처음 본 순간부터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 소설 1회 말미에 두 사람의 첫 만남 장면이 등장한다.

[수레] 안에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고, 바깥쪽에 어여쁘게 생긴 동자들이 앉아있었는데 모두 14-15세가 넘지 않아 보였다. ...또 한 명은 천상에서 내려온 신선과 같은 절색이었다. ... 자옥은 놀라서 얼떨떨해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주렴을 걷어내고 그곳을 계속 쳐다보았다. 그 두 소년이 자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는데, 절색의 소년이 더 오랫동안 자옥을 쳐다보고 있었다. 자옥은 심장이 요동치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절색인 소년의 얼굴에서 광채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고, 신비로운 향이 코끝에 가득했다.<sup>11)</sup>

본문에 묘사한 절색의 소년은 두금언으로, 매자옥과 두금언이 서로 첫 눈에 반하게 된 장면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이후 6회에서 매자옥은 두금언의 극을 처음 보게 되고, 이후 자신이 여태껏 배우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이 깨지게 된다. 자옥은 앞서 『花選』 2번째에 이름을 올린 소혜방의 노래를 들은 참이었다. 내심 금언의 극이 소혜방보다 못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던 차였는데,

11) 陳森, 『品花寶鑒』, 15-16쪽. “車里坐着一個老年的, 外面坐了兩個妙童, 都不過十四五歲, ...一個真是天上神仙, 人間絕色, ...子玉驚得呆了, 不知不覺把帘子掀開, 凝神而望. 那兩個妙童, 也四目澄澄的看他; 那個絕色的更覺凝眸佇望, 對着子玉出神. 子玉覺得心搖目眩, 那個絕色的臉上, 似有一層光彩照過來, 散作滿鼻的異香.”

금언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정신을 놓고, 그의 극에 빠진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 있다. 옆 사람이 뭐라고 해도 듣지 못하고 자신이 흡사 극 중 두여낭 곁의 유몽매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된다. 극을 보고 난 자옥은 이틀 내내 금언의 극을 생각했으며, 일전에 자신이 가소롭게 여겼던 이들처럼 금언의 미모와 재주를 인정하게 된다.

금관(=금언)이 이 같은 미모를 가지고도 극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천하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볼 수도 그를 논평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그 또한 매몰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주가 그를 극단 속에 떨어뜨려 유희의 천재를 드러내려 의도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저 같은 花王을 낳았고 또 허다한 花相들을 낳았으니, 마치 온갖 꽃들이 화왕인 모란을 보필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완상할 수 있는 것은 한 계절에 불과할 뿐이지. 그런데 사람의 미모는 십 년은 갈 수 있으니 사람이 꽃보다 나은 것이다. 그러니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꽃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sup>12)</sup>

배우들을 품평하던 친구들을 향해 그런 일은 “하류”라고 했던 매자옥이 두금언을 만난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버리게 된 것이다.

두금언의 상황 또한 매자옥과 별반 다르지 않다. 두금언은 북경에 올라와 실의에 찬 나날을 보내다 꿈에서 어떤 미소년을 보게 되는데, 그 소년의 용모가 매자옥과 똑같았다. 이 때문에, 매자옥이 두금언의 극을 처음 보러 온 날, 두금언도 매자옥을 의식하고 있었다. 이 날 둘은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하게 되고, 이후 계속 만나지 못하다가 소설 10회가 되어서야 서자운의 계략으로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게 된다. 서자운이 두금언과 닮은 다른 배우를 내세워 매자옥의 마음을 떠보자고 하는 것이었다. 매자옥은 자신을 유혹하는 가짜 두금언을 힐책하며 자신의 두금언에 대한 순결한 마음에 대해 일장연설을 펼친다.

12) 陳森, 『品花寶鑒』, 93쪽. “琴官這個美貌, 若不唱戲, 天下人也不能瞻仰他, 品題他, 他也埋沒了, 所以使其墮劫梨園, 以顯造化游戲鐘靈之意也未可知, 故生了這個花王, 又生得許多花相, 如百花之輔牡丹. 但好花供人賞玩不過一季, 而人之顏色可以十年, 惟人胜于花, 則愛人之心, 自然比愛花更當勝些.”

성색을 바치는 자는 올바른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산한 정으로 넘겨버린다면 굳자 뉘를 잃지 않는 것이다. 만약 상류가 되는 것에 별 생각 없고, 하품이 되는 것을 구하고, 향당에서만 있는 것을 만족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예전부터 이렇게 천한 사람들에 대해서 스스로 경계하였는데, 어찌 이치를 해하는 걸 참고, 예의를 지키지 않고 방탕하게 지내겠느냐. 네가 비록 배우라는 신분이긴 하지만, 색과 예술이 이름이 드높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음란하고 천한 즐거움을 취하려 하는 것이냐? 난 정말 이런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모르겠구나! 내가 처음엔 네가 고아하고 도도하여 같이 있기 어려워 너를 양모할 만하다 생각하였다. 오늘 만약 네 마음을 헛되이 썼다 한다면, 나 또한 내 정을 잘못 주었구나.<sup>13)</sup>

위 내용을 통해 매자옥이 두금언과 나누고자 하는 정은 신체적 접촉이 완전히 배제된 정신적인 교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색을 밝히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닌”, “하품(下品)”, “천한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두금언 또한 매자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두금언에게 있어 가장 두드러지는 성격적 특징은 바로 “결벽”이다. 작가는 두금언을 속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다른 배우들처럼 치장하지도 않게 하고, 호객들의 술시중을 드는 장면도 거의 넣지 않았다. 뒷부분에서 다시 서술하겠지만, 배우들에게 있어 치장과 술시중은 직업상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었다. 하지만 작가는 두금언을 순결의 극치로 표현하기 위해 현실 생활에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장면에서도 그를 배제시켰다. 두금언의 이러한 결벽은 다른 이들과의 교류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위빙재가 금언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자 손수건을 던지며 운다거나(5회), 말실수한 서자운을 크게 질책한다거나(10회) 하고, 위빙재가 “금언이 성격이 좀 있긴 하지. 태어날 때 염라대왕이 수정을 그 가슴에 심은 것 같이 단단하고 차가우니 말이야. 다른 사람을 붙잡히 여기는 마음이라곤 하나도 없으니 말이야.”<sup>14)</sup>라고 할 정도였다.

13) 陳森, 『品花寶鑒』, 145쪽. “聲色之奉, 本非正人. 但以之消遣閑情, 尚不失為君子. 若不爭上流, 務求下品, 鄉党自好者尚且不為. 我素以此鄙人, 且以自戒, 豈肯忍心害理, 蕩檢逾閑. 你雖身列優伶, 尚可以色藝致名. 何取于淫賤為樂, 我真不識此心為何心. 起初我以你為高情逸致, 落落難合, 頗有仰攀之意. 今若此, 不特你白費了心, 我亦深悔用情之誤.”

14) 전계서, 46쪽. 那琴官的脾气是少有的, 大約托生時, 閻羅王把塊水晶放在他心里, 又硬又冷, 絕沒有一點憐憫人的心腸.

매자옥과 두금언의 정신적인 사랑은 작가가 지향하는 최고의 사랑이었다. 소설 1회에 보면, 작가는 세간에 잘 없는 “用情守禮”한 선비와 “結身自好”한 상공들을 찬미하면서 이것이 곧 “好色不淫”한 것이라고 못 박고 있다. 뒤이어 선비와 상공들의 관계를 情의 여러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먼저 情의 자제들은 열 종류로 나뉘며, 모두 情자가 들어간다.  
 情中正, 情中上, 情中高, 情中逸, 情中華, 情中豪, 情中狂, 情中趣, 情中和, 情中樂.  
 梨園의 名旦들도 열 종류로 나뉘며 이 또한 情자가 들어간다.  
 情中至, 情中慧, 情中韻, 情中醇, 情中淑, 情中烈, 情中直, 情中酣, 情中艷, 情中媚.  
 이들은 모두 상등인물이다. 또 하등인물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情자가 붙지 않으며, 또한 몇 종류를 꼽을 수 있다.  
 姪, 邪, 黠, 蕩, 貪, 魔, 崇, 蠹.<sup>15)</sup>

작가는 情을 기준으로 상등/하등 인물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자옥과 두금언은 상등 인물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감정에만 집중해야 하며, “음란하고, 사악하며, 교활하고, 방탕하며, 탐욕스럽고, 기이하며, 간악하고, 해를 끼치는[姪, 邪, 黠, 蕩, 貪, 魔, 崇, 蠹]” 모든 행동을 배제해야 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잘 만나지도 못했으며, 항상 서로를 그리워만 한다. 사실, 이 둘의 교류에 있어 중요한 것은 “만남”이 아닌 “相思”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둘은 서로가 곁에 없는 시간을 견디기 위해, 두금언은 방을 온통 매자옥을 뜻하는 매화문양으로 장식하고, 매자옥은 두금언의 擘이라는 글자에 착안해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금 모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바꾼다. 어렵게 한 번 만났을 때에도, 수많은 말과 표현으로 상대방의 애정을 확인하지 않는다. “서로 마주 대하

15) 陳森, 『品花寶鑒』, 1쪽. “先將紳中子弟分作十種,皆是一個情字. 一曰情中正,一曰情中上,一曰情中高,一曰情中逸,一曰情中華,一曰情中豪,一曰情中狂,一曰情中趣,一曰情中和,一曰情中樂;再將梨園中名旦分作十種,也是一個情字. 一曰情中至,一曰情中慧,一曰情中韻,一曰情中醇,一曰情中淑,一曰情中烈,一曰情中直,一曰情中酣,一曰情中艷,一曰情中媚.這都是上等人.還有那些下等人,這個情字便加不上,也指出幾種來.一曰姪,一曰邪,一曰黠,一曰蕩,一曰貪,一曰魔,一曰崇,一曰蠹.”

여 말을 잊었다. 정이 넘쳐흘러 말은 없어도 눈썹이 말을 하는 듯 했고, 눈을 감았다 뜨면서 깜빡이는데, 진실로 마음이 하나로 묶인 것 같았으며, 천하의 재자가인 들을 모두 압도할 것 같은”<sup>16)</sup> 모습을 보여준다.

작가의 이러한 情愛觀에 의해, 이후 두 사람은 타인에 의해 몇 번의 이별을 겪고 재회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정신적인 애정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고, 소설은 두금언이 이원에서 나와 매자옥과 같이 글공부를 하는 결말을 맺게 된다.

## 2) 田春航과 蘇蕙芳: 書生과 妓女 관계의 변주

名士 田春航과 名旦 蘇蕙芳은 매자옥과 두금언 다음으로 소설을 이끌어 가는 인물들이다. 이 둘의 이야기는 전통시기 실의에 빠진 서생이 기녀의 도움으로 장원급제 하는 이야기 구조와 상당히 비슷하다. 청 중후기에는 이 기녀의 역할을 배우들이 하곤 했는데, 가장 유명한 것으로 乾隆시기 畵人 畢秋帆과 名旦 李桂官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필추범은 이계관이라는 배우와 친근하게 지냈는데, 이후 장원에 급제하여 巡撫와 尙書 등의 고위 관직을 지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이계관을 ‘壯元夫人’이라 부르게 되었다. 당시 사회에는 ‘장원부인’이라 칭해진 배우들의 이야기가 제법 널리 전해졌으며, 趙翼의 『檐曝雜誌·卷二』에 관련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다.

慶成 극단에 미모와 재주가 뛰어난 자가 있어 사대부들이 왕래하며 친하게 지냈다. 경오·신미년에 경성 극단 方俊官이란 자가 자못 아름다웠다. 내 고향 사람인 庄本淳 사인과 친했는데 본순이 곧 장원이 되었다. 후에 實和극단에 李桂官이라는 자가 무척 아름다웠다. 畢秋帆 사인이 그와 친하게 지냈으며, [필추범] 또한 修撰이 되었다. 그러므로 방준관과 이계관 둘 다 狀元夫人이라 불렸다. 두 사람은 본디 속되지 않았으며 한갓 미모와 재주로만 칭송받은 것이 아니었다. 본순이 죽은 후에 방준관은 그를 위해 일년 동안 상복을 입었다. 추범이 과거에 급제하지 않았을 때 꽤 궁색하였는데 이계관은 때때로 그의 어려움을 도와주었다. 이 때문에 두 사

16) 전게서, 322쪽. “他二人相對忘言, 情周意匝, 眉無言而欲語, 眼乍合而又離, 正是一雙佳偶, 縮就同心, 倒像把普天下的才子佳人, 都壓將下來.”

람 모두 관리들 사이에서 명성이 있었다.<sup>17)</sup>

원래 또한 이 시류에 영입하여 『隨園詩話』에 필추범과 이계관의 이야기를 서술한 바 있다.

이계관과 필추범 상서는 서로 친교를 맺었다. 필추범이 과거에 아직 급제하지 않았을 때 이계관이 가장 극진히 모셨다. 병들면 약을 저울로 달고 물을 요량하였으며, 외출하면 고삐를 잡고 수레를 따랐다. 필추범이 경진년 진사에 합격하자 이계관은 검은 줄 칸을 그린 흰 비단 책을 사주어 殿試에서 시권으로 쓰도록 권유하였다. 필추범은 결국 장원이 되었다. 율양상공은 강희 연간 진사였는데 櫻桃宴에 여러 번 왔다가 이계관이 그 자리에 있음을 알고 웃으며 말했다. ‘내 노안을 닦고서 장원부인을 한 번 보아야겠어.’ 그의 유명세가 이와 같았다.<sup>18)</sup>

위 내용으로 보면, 이계관은 필추범을 수발하는 데 있어 진정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 병수발에 수레를 모는 것까지, 어느 하나도 이계관의 손이 닿지 않은 것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필추범이 장원에 급제한 후, 외직으로 나가게 되자 이계관도 그의 뒤를 따른다. 이 이야기는 청나라 사대부들 사이에서 자못 풍류스러운 일로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 『품화보감』의 작가 진삼 또한 이 둘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소설에 녹여내어 묘사하였던 것이다.

명사 전춘항은 12회에 등장하며, 매자옥과 마찬가지로 인물과 집안이 훌륭한 재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sup>19)</sup> 매자옥과 다른 점이 있다면, 기녀들과 노는 것을 좋

17) 趙翼, 『檐曝雜記·卷二·梨園色藝』, 中華書局, 1982, 37쪽. “慶成班有方俊官, 頗韶靚, 爲吾鄉庄本淳舍人所昵. 本淳旋得大魁. 后宝和班有李桂官者, 亦波峭可喜. 畢秋帆舍人狎之, 亦得修撰. 故方、李皆有狀元夫人之目, 余皆識之. 二人故不俗, 亦不徒以色藝稱也. 本淳歿后, 方爲之服期年之喪. 而秋帆未第時頗窘, 李且時周其乏. 以是二人皆有聲縉紳間.”

18) 袁梅, 『隨園詩話·卷四·第四十一條』, 117쪽. “李桂官与畢秋帆尚書交好. 畢未第時, 李服事最殷. 病則秤藥量水, 出則授轡隨車. 畢中庚辰進士, 李爲購素冊界烏糸, 勸習殿試卷子, 果大魁天下. 溧陽相公, 康熙前庚辰進士也, 重赴櫻桃之宴, 聞桂郎在坐, 笑曰, 我揩老眼, 要一見狀元夫人. 其名重如此.”

19) 陳森, 『品花寶鑿』, 166-167쪽. “原來這人姓田, 名春航, 号湘帆, 年二十三歲. 也是金陵人, 却寄居揚州. 自幼失怙. 母張氏, 名門世族, 淹通經史. 二十五歲上生了春航, 二十八歲上, 春航之父田浩中了進士, 卽歿于京師. 這田夫人苦節撫孤, 教養兼任, 幸藉其兄張桐孫太守不時周濟.

아해 집에 돌아갈 것을 잊을 정도로 호색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부하러 경사에 왔을 때, “이 곳의 기녀들은 못생겼으며 양 가닥 바짓부리를 묶고 머리 가득 종이꽃을 꽂고 가슴을 내밀고 살만 피둥피둥 찌고 무식하며 분칠한 얼굴, 기름칠한 머리에 파 마늘을 먹고 배갈을 마시는”<sup>20)</sup> 모습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을 정도였다. 덕분에 “여색을 탐하는 마음이 깨끗하게 없어졌다.”<sup>21)</sup>(12회)

하지만 전춘항은 곧 남방의 기녀들보다 더 나은 상공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 경사에서는 유명한 기녀보다 유명한 상공을 찾는 게 훨씬 쉬웠다. 사람들은 상공에 열화와 같은 성화를 보냈고, 이러한 상황은 여러 필기에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경사에 창기들이 비록 많았지만 소주, 남경에 비교하면 아득하여 미칠 수 없었다. 豪商과 부유한 관리들은 그 대부분 나이 어린 배우에 미혹되어 그 곳에 이를 겨를이 없었다. 金魚池, 靑草廠 같은 곳에 즐비한 기원에는 문마다 창기들이 기대어 서 있었는데 그곳에 들러 데리고 노는 자들은 下流로 수치심도 모르는 자들이었다.<sup>22)</sup>

서울의 연회에서 배우 아니면 좋아하지 않았고 기녀는 매우 경멸했다. 선비 중에 기생집에 출입하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비방하였다. 어린 배우 맞아들이면 득의양양하여 어떤 어린 배우가 성대한 명성도 저버리고 자신에게만 유독 후의를 베푼다고 여겼다.<sup>23)</sup>

- 
- 這春航的學問, 多半得于母教. 幼有鳳毛之譽, 長夸駿骨之奇. 十三歲進了學, 十八歲中了副舉. 生得一貌堂堂, 朗如玉山, 清如秋水. 情性則蘊藉風流, 胸襟則卓犖瀟灑. 在庠序時, 人就謂其鷄群鶴立. 但時運未來, 三試不中. 娶妻顏氏, 德容兼備, 是个广文先生之女, 与春航琴瑟和諧.”
- 20) 陳森, 『品花寶鑒』, 167쪽. “幸亏此地的妓女生得不好, 扎着兩條袴腿, 插着滿頭紙花, 挺着胸脯, 腸肥腦滿, 粉面油頭, 吃葱蒜, 喝燒刀.”
- 21) 전계서, 167쪽. “把春航女色之心, 收拾得干干净净.”
- 22) 佚名, 『燕京雜記』, 北京古籍出版社, 1986. 129쪽. “京師娼妓雖多, 較之吳門白下, 邈然莫逮. 豪商富官, 多蠱惑于优童, 鮮有暇及者. 至金魚池、靑草廠等處, 連居比屋, 當戶倚門, 過而狎者, 尤爲下流无耻.”
- 23) 黃鈞宰, 『金壺豔墨·卷二·伶人』, 『筆記小說大觀·金壺七墨』本, “京師宴集, 非优伶不歡, 而甚鄙女妓. 士有出入妓館者, 衆皆訕之. 結納離伶, 則揚揚得意, 自鳴于人, 以爲某郎負盛名, 乃獨厚我.”

기원이 앞문 밖 팔대호동에 있는데 한 모퉁이에 폐지어 모여 있었다. 지대가 낮고 더러운 곳이어서 조금이라도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 가지 않았다.<sup>24)</sup>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자면, 당시 경사에 기녀들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수준이 배우보다 낮았으며, 기녀를 찾는 이들 또한 하류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춘향은 상공이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상공에 대한 끝없는 예찬을 늘어놓기에 이른다.

총칭 십만 리 상하 오천 년에, 상공과 비교해 더 좋은 것이 있었을까? 상공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평가해줄 수 없다. ... 오직 상공만이 제철 꽃 같아 초목이 아니며, 아름다운 옥 같아 분칠을 빌지 않으며, 흰 달 부드러운 구름 같으면서도 접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기이한 책, 이름난 그림 같으면서도 말할 수 있다. 지극히 정미한 애완물 같으면서도 갖은 교태로운 태도가 무궁무진하게 나온다. 상공을 잃는다면 고급의 아름다운 물건을 얻는다 할지라도 진기할 수 없고, 상공을 얻는다면 고급의 아름다운 물건을 잃어도 마음 쓸 필요가 없다.

내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여색을 좋아하는 것은 정상으로 여기고 남색을 좋아하는 것은 이상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색이면 그만이지 도대체 왜 꼭 남녀를 따지는가?<sup>25)</sup>

전춘향은 매자옥과 달리 남색을 “즐기는” 것으로 생각했고, 육체적 관계 또한 포함된 것이었다. 매자옥이 처음부터 색에는 일절 관심이 없었고, 두금언을 정신적인 반려로만 생각했던 것에 반해, 전춘향은 풍류를 즐기는 재자로 처음에 소혜방에게 사특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점점 마음이 정결한 쪽으로 바뀌게 된다.

명단인 소혜방은 『曲臺花選』이라는 책에 2번째로 이름을 올릴 정도로 유명한

24) 何剛德, 『春明夢泉·京官挾仇』, “妓寮在前門外八大胡同, 糜集一隅, 地極湫穢, 稍自愛者絕不敢往.”

25) 陳森, 『品花寶鑑』, 169-170쪽. “縱橫十萬里, 上下五千年, 那有比相公好的東西? 不愛相公, 這等人也不足比數了. ……只有相公如時花, 却非草木; 如美玉, 不假鉛華; 如皎月纖云, 却又可接而可玩; 如奇書名畫, 却又能語而能言; 如極精極美的玩好, 却又有千嬌百媚的變態出來. 失一相公, 得古今之美物, 不足為奇; 得一相公, 失古今之美物, 不必介意. ……我最不解今人好女色則以為常, 好男色則以為異, 究竟色就是了, 又何必分出男女來?”

배우였다. 그는 “눈으로 빚어 놓은 것 같고, 아름다운 옥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생겼으며, 아름답고 우아한 자태와 향을 지니고 있었다. 마치 밝은 달 아래 배꽃과 같이 희었으며, 고아하고 우아하며 기품이 있는”<sup>26)</sup>(12회) 배우였다. 혜방은 금언보다 영리하게 행동했다. 그는 “내가 비록 불행하게도 이원의 나락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 업에 종사하게 된 이상 현실을 직시해야지.”<sup>27)</sup>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처소에서 반기관과 같은 호객을 접대하기도 하며, 일상적인 배우의 생활을 지내고 있었다. 현실에 순응한 소혜방은 의로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인물이기도 했다.<sup>28)</sup>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전춘향과의 교제이다. 소혜방은 전춘향이 가장 궁핍했을 때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전춘향이 혜방의 기예를 높이 샀을 뿐 아니라, 그의 인물됨을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혜방이 춘향을 지원하겠다고 한 날 둘은 같이 밤을 지새우는데, 둘 사이에 전에 없던 다른 분위기가 연출된다.

“두 사람 모두 지우(知遇)의 감정이 격앙되어 흐느꼈다. 둘이 마주앉아 도의를 나누며, 단 한 치의 사악한 마음도 없이, 닭이 울 때까지 이야기 하다 각자 옷을 입고 잠이 들었다.”<sup>29)</sup>

작가는 “지우”라는 표현으로 서로가 서로를 알아봐주는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풍류제자였던 전춘향과 접객을 생활화했던 소혜방이 이렇게 담백한 장면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작가는 “단 한 치의 사악한 마음도 없이”, “각자 옷을 입고”라면서 둘 사이에 아무런 육체적 관계가 없었음, 이 둘의 관계가 매우 순수한 관계임을

26) 전계서, 175쪽. “那相公生得如冰雪搏成, 瑯瑤琢就, 韻中生韻, 香外含香. 正似明月梨花, 一身縞素; 恰稱蘭心蕙質, 竟體清芬.”

27) 陳森, 『品花寶鑒』, 6쪽. “余不幸墜落梨園, 但既爲此業, 則當安之.”

28) 소혜방의 의로운 행동은 자신의 사부인 香雪先生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향설선생은 혜방에게 글과 극을 가르친 선생으로, 소혜방을 자기 자식처럼 여겼다. 이후 선생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자, 소혜방은 선생이 자신을 가르쳐 준 은혜를 갚기 위해 이백금을 내어 장례를 치르고 명사들에게 애도문을 지어달라고까지 한다.

29) 陳森, 『品花寶鑒』, 193쪽. “彼此都有知遇之感, 不禁慷慨歎起來, 兩人對坐着, 倒成了道義之交, 絕无半点邪念, 直談到鷄鳴, 方各和衣睡了.”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둘 사이가 일반적인 士人과 男旦 사이가 아닌, 작가가 찬양하는 정신적인 관계로 변모했음을 알려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소혜방의 뒷바라지에 힘입은 전춘향은 48회에 이르러 장원에 급제하게 된다. 이어 49회에서 전춘향과 소혜방이 '장원부인'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데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다.

후에 7월 초칠일로 [전춘향의 혼인]날을 정했다. 춘향은 이 일을 혜방에게 말했고, 혜방도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춘향은 자운의 일을 말해주면서, 소 소저(춘향의 처가 될 사람)가 혜방을 닮았다고 말했다. 혜방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건 그 분께 실례되는 말 아닐까요? 천금과 같은 아가씨가 저와 닮았다니요. 말이 좋아 그렇지,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춘향이 말했다. “너와 닮지 않았을까봐 걱정이지. 만약 너를 닮았다면, 나는 정말 만족스러울 것이야. [너와 닮았다면] 그녀를 보살처럼 모시면서 매일 절할 거다.” 혜방이 웃으며 말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누구한테 절하시는 걸 본 적이 없는데요.” 춘향이 웃으며 말했다. “네가 나보고 절하라고 하면 절하지 뭐.” 그러더니 먼저 혜방에게 절을 했다. 혜방이 웃더니 옆으로 비켜서며 말했다. “저를 너무 황송하게 하지 마세요. 절은 당신의 장원부인에게 가서 하시라구요.” 춘향이 웃으며 말했다. “방금 누가 말하긴 했지.” 혜방이 말했다. “뭘요?” 춘향이 뭘 생각하는 듯하더니 말했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혜방이 말했다. “방금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으면서, 왜 또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을 돌리시는 거예요?” 춘향이 말했다. “그 장원부인이라는 거 말이야. 원래 성이 소씨라고.” 혜방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춘향을 흘겨 보았다. 춘향이 이에 대해 다시 말하지 않았고, 혜방도 다시 묻지 않았다. 30)

둘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전춘향이 비록 장난식으로

30) 陳森, 『品花寶鑒』, 714쪽. “后來定于七月初七日. 春航將此事与蕙芳說明, 蕙芳也替他歡喜. 春航又述子云之言, 說這位蘇小姐像你竟到九分. 蕙芳笑道: “這不是糟蹋人么? 一个千金小姐像了我, 還說好, 我們算什么入呢?” 春航道: “只怕未必如你. 若果然像你, 我就心滿意足了, 当他菩薩供養, 天天拜他.” 蕙芳笑道: “你嘴里常說, 我就沒見你拜過誰.” 春航笑道: “你要我拜么, 我就拜.” 果然先對蕙芳作了一揖, 蕙芳一笑, 連忙走開道: “不要折殺了我, 留着拜你那位狀元夫人罷.” 春航笑道: “方才倒有一人講.” 蕙芳道: “講什么?” 春航想了一想道: “沒有講什么.” 蕙芳道: “你說方才有人講, 怎么轉口又說沒有呢?” 春航道: “講就講那狀元夫人的一句, 原是我姓蘇.” 蕙芳臉一紅, 瞅了春航一眼. 春航不敢再說, 蕙芳也不問了.”

절을 하였지만, 마지막 부분을 소혜방이 세간에 유행하던 장원부인과 딱 들어맞는다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가 있음을 눈치 챌 수 있다. 그렇기에 혜방의 얼굴이 붉어졌고, 다시 이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 일 이후 두 사람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는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소설의 결말에서 전춘항은 소혜방과 닮은 소 소저와 결혼하고, 소혜방은 악적에서 빠져나와 춘향과 막역한 친구사이가 된다.

### 3) 豪客과 黑相公: 철저한 상업적 관계

『품화보감』의 작가가 적극적으로 묘사하며 찬양하는 인물은 매자옥과 두금언을 필두로 한 명사와 명단들이다. 하지만 현실 속의 사대부와 남단들 간의 관계는 이들과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현실 생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이들의 관계는 ‘豪客’이라고 하는 손님들과 ‘黑相公’<sup>31)</sup>이라 불리는 자들의 조합이었다. 소설에서는 奚十一과 潘三이 대표적인 호객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흑상공으로는 二喜, 蓉官 등이 이에 속한다. 작가는 이들을 긍정적인 인물—명사와 명단—의 형상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소설에 등장시켰기 때문에, 이들에게 별다른 편쪽을 할애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소설 속에서 다른 호객과 흑상공들의 모습을 통해 당시 청나라 중기 사대부와 상공 사이 관계의 일면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호객’은 당시 극을 보러 왔던 손님들을 일컫는 말로, ‘老鬪’라고도 불렸다. 이들이 극장에 오는 목적은 극 감상 보다는 배우의 요염한 모습 감상에 있었다. 소설에서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전춘항조차 “나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극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극이 전아하고 사람이 속되기 보다는 사람이 전아하고 극이 속된 편이 낫다.”<sup>32)</sup>, “나는 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예는 가볍게 여긴다.

31) 상공들은 각각 紅과 黑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흑상공은 이미 한물 간 상공 혹은 재물만 중시하고 기예는 소홀히 여기며 몸을 파는 이들을 가리켰다. 홍상공은 색과 기예가 마르고 건강한 이들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사적인 행동거지도 절제하는 편이었다. (相公具有黑、紅之分。黑相公指紅時已過門前冷落鞍馬稀或是一直就是重財而輕藝的相公，賣身傾向比較明顯；紅相公則是色藝正健者，他們受人注目，在私人行為上可能表現的比較節制。) 張在舟, 『曖昧的歷程』, 中州古籍出版社, 2001, 542쪽.

희곡 대본은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배역의 우열 또한 잘 알지 못한다. 오직 그 자태가 아름다운 자를 취하여 지극한 보배처럼 바라볼 뿐이다.”<sup>33)</sup> 등의 말을 서슴지 않는다. 작중에서 名士라고 하는 인물의 생각이 이러한데, 부정적 인물인 해십일이나 반삼 등이 극장에 오는 이유는 뻘했다. 당시 사람들이 호객들의 극장 출입의 목적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적은 기록이 곳곳에 남아 있다.

生트의 노래는 여유롭게 한가한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나이 어린 배우는 목청이 충실하지 않아 퉁소 소리에 따라 겨우 비슷하게 따라할 뿐이지만, 이러한 극을 보는 자들도 색을 보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다.<sup>34)</sup>

극장의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손님들은 비단 소리를 듣고 기예를 감상하기 위해서 온 것만은 아니었다.<sup>35)</sup>

이렇듯, 당시 극장을 찾은 호객들의 목적이 기예가 아닌 색에 있다는 것을 안 극장 측에서는, 손님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배우를 더 잘 볼 수 있는 전용 좌석을 따로 마련하기도 했다.

누각 위에서 무대와 가장 가까운 곳 좌우에는 병풍으로 서너 칸을 막아 놓고 ‘官座’라고 한다. 이는 豪客이 모이는 곳이다. 관좌 아래 극장 문 두 번째는 가장 비싸다. [배우가] 발을 들고 들어오면서 교태를 부리기 좋기 때문이다.<sup>36)</sup>

고객의 입맛에 맞춘 극장의 서비스로 인해 관중들은 배우 자체에 더 집중할 수

- 
- 32) 陳森, 『品花寶鑒』, 上海古籍出版社, 1990, 61쪽. “我是講究人, 不講究戲, 與其戲雅而人俗, 不如人雅而戲俗.”
- 33) 전계서, 184쪽. “我是重色而輕藝, 與戲文全不講究, 脚色高低, 也不懂得, 惟取其有姿色者, 視爲至寶.”
- 34) 茗溪藝蘭生, 『側帽餘談』, 張次溪, 『清代燕都梨園史料(正續編)』, 中國戲劇出版社, 1988, 602쪽. “大約生旦之曲, 宜于淺斟低唱, 雖伶喉氣未充, 僅能隨簫管聲依約附和, 而觀此等劇者, 亦以色不以聲也.”
- 35) 邱炜菱, 『菽園贅談』, 朱一玄, 『明清小說資料匯編』, 南開大學出版社, 2012, 678쪽. “梨園坐滿, 客之來者, 不僅爲聆音賞技.”
- 36) 蕊珠旧史, 『夢華瑣簿』, 張次溪, 『清代燕都梨園史料(正續編)』, 353쪽. “樓上最后近臨戲台者, 左右各以屏風隔爲三四間, 曰官座, 豪客所集也. 官座以下場門第二座爲最貴, 以其帘將入時, 便于擲心賣眼.”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극장은 더 이상 극을 하는 장소가 아닌, 호객들의 영업 장소로 변모했다. 상공들 또한 무대 위에서 자기 매력을 어필할 뿐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자신의 손님을 끌어 모으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친구 말로는, 요새 호객들이 극을 보러 가면, 편히 수작부리기 위해 꼭 배우가 퇴장하는 문 주변에 앉는다고 한다. 그리고 묘들은 아는 이가 있으면 과일을 내온다거나 직접 와서 인사를 한다하며 호응해준다. 몇몇은 노래가 다 끝나기 전에 같이 수레를 타고 주점에 간다.<sup>37)</sup>

각 회반의 어린 배우들은 그 날 극 중 3막이 지나가면, 퇴장하는 문 주렁 아래에서 누각 머리를 바라본다. 만약 눈에 익은 손님이 있으면 바로 누각에 올라 시중들며 앉는다. 손님이 2-3명인데 시중들겠다고 앉은 어린 배우들이 20-30배일 때가 종종 있다.<sup>38)</sup>

위의 내용으로 보아 상공들이 연기뿐 아니라, 호객들의 시중도 들어야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문안 인사는 기본으로 하는가 하면, 차와 과일을 나르기도 했다. 손님 2-3명에 몇 십 명의 상공들이 둘러싼 광경을 떠올려 보면, 호객의 환심을 사기 위한 상공 간의 신경전이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소설에서도 이렇게 호객과 상공들이 서로 희롱하며 응대하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

(위병재가) 누각을 바라보니, 관리의 모양새를 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 뒤로 많은 배우들이 서 있었다. 또, 희극방문 주렁 안에는 소단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눈같이 흰 얼굴을 반 정도 내놓고, 관리들이 있는 곳을 보면서 같이 웃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삼삼오오 모여 올라가 문안 인사를 드렸다.<sup>39)</sup>

37) 吳長元, 『燕蘭小譜』, 張次溪, 『清代燕都梨園史料(正續編)』, 47쪽. “友人言: 近時豪客觀劇, 必坐于下場門, 以便與所歡眼色相勾也. 而諸旦在園見有相知者, 或送菓点, 或親至問安, 以爲照應. 少焉歌管未終, 已同車入酒樓矣.”

38) 沈太侔, 『宜南零夢錄』, 張次溪, 『清代燕都梨園史料(正續編)』, 809쪽. “各班雜伶, 日戲場三出開過後, 成駢立上下場門帘下. 向樓頭瞻望. 若樓上有熟客. 即登 接待坐. 往往主客二三人. 而侍坐雜伶多至二三十輩.”

39) 陳森, 『品花寶鑒』, 34-35쪽. “望着那邊樓上, 有一班像些京官模樣, 背后站着許多跟班. 又見戲房門口帘子里, 有几个小旦, 露着雪白的半个臉儿, 望着那一起人笑, 不一會, 就攢三聚五的上去請安.”

인사를 나눈 상공들의 다음 목적지는 “주점”이었다. 당시 극장 주변에는 호객과 상공들을 위한 주점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金台殘泪記』의 기록이 당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극장 앞뒤와 양 옆 모두 술집이 있었다. 그 곳에서 날마다 한 번에 만전 어치의 음식을 먹는, 금실로 장식한 휘장이 드리워진 곳이었다. 가경 연간에는 배우를 끼고 술집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옛 풍습으로 돌아갔다.<sup>40)</sup>

주점에서 호객과 상공들은 술자리를 벌이며 서로 희롱하였으며, 상공들은 호객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시중을 들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호객이 피우는 담배를 담아주는가 하면, 차를 따라준다던가 하는 것이었다.<sup>41)</sup> 그 중에는 “敬皮杯”라 불리는 매우 에로틱한 서비스도 있었다. 소설에서 이 장면을 매우 생생하게 잘 묘사하고 있다.

이희가 이원무의 몸에 걸터앉았는데, 똑바로 앉아서 원무의 고개를 받쳐 들고 위로 들어 올리니, 원무가 얼굴을 들고 있게 되었다. 이희는 그 진주 같은 입술을 넓은 원무의 입에 가까이 가져다 붙이고는 천천히 입을 적시면서, 한 번에 세 번이나 입으로 술을 올렸다. 원무는 재호[우유에서 정제한 최상의 음료]를 정수리에 들이부은 것 같이 말 할 수 없을 만큼 기뻐했다.<sup>42)</sup>

술자리에서의 에로틱한 분위기는 이후 같이 밤을 지새우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 사이에 상공은 호객에게 몸을 파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로서 호객의 환심

40) 張際亮, 『金台殘泪記·卷三』, 張次溪, 『清代燕都梨園史料(正續編)』, 250쪽. “茶園左右前后, 皆有酒館, 又曰酒庄. 一食万錢, 誠銷金帳邪. 嘉慶間曾禁挾优入館, 未几寔故.”

41) 陳森, 『品花寶鑒』, 112쪽. 혹상공 둘이 촌스러운 노투를 끼고서는 이원무에게 붙어 이리저리 둘러보고서는 바쁘게 움직였다. 보주와 이희는 서로 담배를 담아준다, 차를 따라준다 하면서 하나는 팔에, 하나는 다리에 둘러붙었다. 이원무는 득의양양해져서 매우 기뻐했다. (兩個黑相公, 夾着个怯老斗, 把个李元茂左顧右盼, 應接不暇. 保珠、二喜搶裝烟, 搶倒茶, 一个挨緊了膀子, 一个擠緊了腿. 李元茂得意洋洋, 樂得心花大放.)

42) 전개서, 115쪽. “二喜便跨在元茂身上, 端端正正的, 將元茂的頭捧正, 往上一抬, 元茂便仰着臉. 二喜却把那一点珠唇, 緊貼那一張闊嘴, 慢慢的沈將出來, 一連敬了三口. 元茂便如醍醐灌頂, 樂不可言.”

을 사고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장기간 이런 생활을 하게 된 상공들은 호객을 돈줄로만 인식하게 되고, “우리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이면 됐지, 무슨 신분을 따지겠어.”<sup>43)</sup> 등의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된다. 호객들도 마찬가지로 상공들에게 돈을 주고 색을 사는 것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공들이 돈을 너무 밝힌다며 비꼬기도 한다.

[중우가] 이희에게 말했다. 너희는 돈 있는 노투를 보면 기뻐하며 ‘재물신이 오셨으니, 기꺼이 돈 쓰시겠네.’ 라고 하겠지. 하지만 가난한 노투가 흑상공을 본다면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할 게다. ‘호랑이가 왔으니, 사람을 만나면 잡아먹으려 할 거야.’<sup>44)</sup>

한 마디로 호객과 상공의 관계는 돈을 주고 색을 사고파는 관계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이들의 관계는 철저한 상업적 매매 관계였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진정한 감정을 발견한다거나 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작가는 명단들의 입을 빌어 “그들[흑상공]은 또 다른 부류야. 우리와 왕래는 하지 않아. 우리는 옥허 문하의 제자들로, 대의를 위한 일을 하지. 그들은 통천 교주 문하의 사람들로 나쁜 사람을 도와 나쁜 일을 한다고.”<sup>45)</sup>라 말하며, 자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명단들과 현실 생활 속의 흑상공들 간의 선을 확실히 긋는다.

### 3. 『品花寶鑒』에 나타난 士人과 男娼 관계 서술태도 분석

#### 1) 감상자 입장에 입각한 관계 묘사

『품화보감』의 작가 진삼은 명사와 명단들을 통해 그들 사이의 진실한 감정과

43) 전계서, 276쪽. “咱們作買賣的人, 有錢就好, 何必那樣拿身分呢.”

44) 陳森, 『品花寶鑒』, 114쪽. “卽對二喜道: ‘你們見了有錢的老斗, 便喜歡道: ‘財神爺到了, 肯花錢.’ 窮老斗見了黑相公, 便害怕道: ‘老虎來了, 逢人就要吃的.’”

45) 전계서, 343-344쪽. “這又是一路, 不與我們往來的. 我們是玉虛門下弟子, 是興周伐紂的, 他們是通天教主門人, 是助紂爲虐的.”

교류를 표현하려 애썼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관계가 철저히 명사의 입장에서 서술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소설 곳곳에 나타난다.

소설 5회에서 서자운은 명사와 명단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규정을 세웠으니 설을 맞이해 대사를 축하함에 너희들의 인사를 기준으로 할 뿐 그 나머지는 일절 사용하지 않겠다.老爺 두 글자를 입 밖에 내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sup>46)</sup>라고 선언한다. 서자운이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은, 명사와 명단들 사이의 신분적 경계를 허물고 교류하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선언은 명단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었으며, 게다가 명사가 명단에게 베푸는 ‘은사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서자운이 평소 배우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면, 이러한 우월감을 바로 느낄 수 있다.

정을 쏟고 미색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 그는 아름다운 상공들을 기이한 보배, 아름다운 새, 이름난 꽃처럼 보았으며,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만 가질 뿐 친밀하고 음란하게 데리고 놀 생각은 없었다. 그러므로 명단들은 개개인이 그와 더불어 形迹에 구애되지 않고 사귀었으며 표면적인 사실들을 무시하였다. 그를 자비로운 아버지, 은혜로운 어머니, 단비, 상서로운 구름처럼 여겨, 다 말할 수 있었고 단순명쾌하지 않은 점이 없었다.<sup>47)</sup>

서자운은 상공들을 “기이한 보배, 아름다운 새, 이름난 꽃”과 같이 “감상하는 태도”로 대하고 있다. 이는 소설의 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제목의 품의 대상인 花는 철저히 명단들의 몫이다. 이 품의 대상은 절대 명사가 될 수 없다. 소설 1회에서 사남상이 매자옥에게 “세간에서 사람의 이목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뒤흔드는 것으로 무엇이 최고인 것 같은가?(世間能使人娛耳悅目,動心蕩魄的,以何物爲最?)”라고 묻는 것에 매자옥이 知己라고 대답하자, 사남상은 “벗이 어찌 이

46) 陳森, 『品花寶鑒』, 69-70쪽. “我們立下章程, 凡遇年節慶賀大事, 准你們請安, 其余常見一概不用. 老爺二字, 永遠不許出口.”

47) 전계서, 65쪽. “這一片鐘情愛色之心, 却与別人不同, 視這些好相公与那奇珍异宝、好鳥名花一樣, 只有愛惜之心, 却无褻狎之念, 所以這些名旦, 个个与他忘形略迹, 視他爲慈父恩母. 甘雨祥云, 无話不可盡言, 无情不可徑遂.”

목을 즐겁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유향[자옥의 호] 자네 마음가짐이 불량하군.(朋友豈可云娛耳悅目的? 庾香設心不良.)"이라며 타박한다. 여기서 "이 목을 즐겁게 하는 것", 즉 "감상"이 가능한 범주에 벗어난 절대로 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명사들이 감상의 태도로 대하는 명단은 결코 "벗"의 범주에 들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감상자의 태도는 서자운뿐 아니라, 주인공 매자옥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매자옥이 두금언의 극을 보고난 후의 감상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 지라도 완상할 수 있는 것은 한 계절에 불과할 뿐이지. 그런데 사람의 미모는 십 년은 갈 수 있으니 사람이 꽃보다 나은 것이다. 그러니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꽃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라는 말을 한다. 그는 금관의 아름다운 미모를 "꽃"에 비유하며, 꽃보다 더 오래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다.

이렇듯, 명사들은 완벽한 감상자의 입장에서 명단들을 대하고 있으며, 감상에 있어 명단들의 미색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앞서 서술한 호객들은 물론이고, 작품에서 긍정적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매자옥과 전춘향 모두 명단들의 "미색"에 먼저 반해 그들과 교류를 시작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당시 사람들이 묘의 미색에 얼마나 열중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 2) 감상물로서의 명단: 이상적 여성상 투영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명사들은 완벽한 감상자의 입장에서 감상물로서의 명단의 미색을 "감상"한다. 감상물로서의 명단은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미모를 갖추고 있다. 소설에서는 매자옥의 상대역이 두금언의 여성보다 더 여성스러운 외모에 대해 여러 차례 자세히 묘사한다. 묘사하는 장면마다 "그 아이 성이 두씨이니, 혹여 두 여남이 살아 돌아온 게 아닐까 한다네. 아니면 선녀 두란향이 인간 세계에 내려온 것인가.(他姓杜, 或者就是杜麗娘還魂? 不然, 就是杜蘭香下嫁.)" 등과 같이 세간에 존재할 수 없는 이상적인 여성에 비유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 전체적으로 매우 보편적이었다. 이원의 배우들을 품평한 책에서도 “가는 허리에 옆 걸음, 가는 노랫소리에 움츠린 어깨, 바라보면 나약하고 아리따운 여자와 꼭 같다.”<sup>48)</sup>, “맑은 자태, 수척한 골격, 섬세하고 보드라운 용모, 마치 성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는 암전한 여자 같기만 하다.”<sup>49)</sup> 등의 표현을 함으로써 “여자와 꼭 같다” 혹은 “여자 같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사회적인 심미 취향에 부합하기 위해 상공들은 피나는 노력을 해야 했다.

새로운 배우가 들어오면 밑실에 조용히 가두고 항상 굶주리도록 두었다. 그리고는 현미, 초두로 점심을 주되 기름과 소금을 가미하지 않았으므로 삼키기 어려웠다. 이 같이 한 달 남짓 지나면 미소년들은 더욱 희어지고 윤기까지 났다.<sup>50)</sup>

오관이 단정한 아이를 뽑아, 말하는 법, 보는 법, 걷는 법을 가르친다. 아침에 일어나면 맑은 고기 국물로 얼굴을 씻게 하고, 맑은 계란탕을 마시게 하고, 식사도 담백한 것으로 한다. 밤에는 온 몸에 약을 펴 바르는데, 손발에는 바르지 않는다. 이는 화독을 빼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서너 달이 지나면 아름다운 여성처럼 변하게 되어, 눈을 한 번 돌리는 것으로 아름다움이 넘쳐흐르게 된다.<sup>51)</sup>

이렇듯 상공들은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여성보다 더 여성스러운 용모”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감상자인 명사들은 이들에게 미색 이외의 것까지 바라게 된다. 바로 명사들과 비슷한 지적 수준이었다. 작품에서 긍정적인 형상으로 출현하는 상공들은 명사들과 비슷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품성도 늘 온유둔후하고 재기 있는 선비처럼 자유분방할 뿐 아니라, 거문고, 바둑, 서화에 대해서도 선비와 같이

48) 吳長元, 『燕蘭小譜』, 張次溪, 『清代燕都梨園史料(正續編)』, 36쪽. “纖腰仄步, 細領寒肩, 望之絕似柔媚女郎.”

49) 전계서, 40쪽. “清資瘦骨, 膩理柔容, 如侯城隅之靜女.”

50) 茗溪藝蘭生, 『側帽餘談』, 張次溪, 『清代燕都梨園史料(正續編)』, 624쪽. “凡新進一伶, 靜閉密室, 令恒飢. 旋以粗糲和草頭相餉, 不設油鹽, 格難下咽. 又如是月余, 面首轉白, 且加潤焉.”

51) 徐珂, 『清稗類鈔·伶伶類』, “擇五官端正者, 令其學語、學視、學步. 晨興, 以淡肉汁盪面, 飲以蛋清湯, 肴饌亦極醜粹, 夜則敷藥遍體, 惟留手足不塗, 云泄火毒. 三四月后, 婉變如好女, 回眸一顧, 百媚橫生.”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더 중요한 점은, 명사들이 이들에게 여성에게 바랄 법한 “정절”까지 요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설 1회에서 명단들을 소개한 『曲臺花選』에서 소혜방은 스스로를 “내가 불행히 이원에 몸을 담게 되었지만 이 일을 업으로 삼았으니 현실을 직시할 것이다. 누가 이 안에서 정절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였는가, 그들은 필히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다 사서 고생했을 것이다.”<sup>52)</sup>라고 평가하는데, 여기서 그가 자신이 불행히 이원에 들어왔지만 정절을 지키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소설 곳곳에서 명단들의 정절을 강조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서술한 매자옥과 두금언 사이에 일어났던 가짜 두금언 사건에서도, 둘 사이에 “정절”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춘향과 소혜방이 합방하는 장면에서도 작가는 굳이 둘은 닭이 울 때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웃을 갖춰 입고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며 둘 사이에 육체적 관계가 없었음을 말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결벽증처럼 보이는 정절에 대한 강박 증상은 소설 작품에 제대로 된 여성 캐릭터를 찾아볼 수 없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이미지가 매우 빈약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춘향이 경사에 와서 본 기녀들은 그의 호색한 마음을 일순간 없앨 정도로 수준에 못 미치는 인물들이었다. 게다가 결말 부분에 명사들과 결혼하는 여성들도 존재감이 미미하다. 이러한 여성 인물의 부재의 공백에 기인한 여성에 대한 모든 기대심리가 男묘에게 투영되고, 그 결과 소설 속의 묘들은 지극히 여성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 3) 배우에 대한 멸시

비록 소설이 명사와 명단들 간의 애정과 교류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작자는

52) 陳森, 『品花寶鑒』, 6쪽. “余不幸墜落梨園, 但既爲此業, 則當安之. 誰謂此中不可守貞抱潔, 而必隨波逐流以自苦者.”

기본적으로 배우라는 직업을 매우 비천하게 여기고 있다. 당시에는 작가인 진삼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배우를 천대하는 심리가 만연해 있었다.

실제로 당시 배우는 사회 계급에서 천민에 속했다. 이 때문에 배우들은 유명해 지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직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멸시당하기 일쑤였다. 소설 22회에서는 유랑민이 상공을 꾸짖으며 “어떤 놈이건 소단일 뿐이니, 누군들 너의 노투가 아니겠느냐. 돈이 생기면 곧 너를 부를 것이다.”<sup>53)</sup>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조차 업신여길 수 있는 존재가 상공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44회에서 소혜방은 “일 년만 있으면 일만 은을 모아 큰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아무리 모은들 결국은 ‘小旦’ 두 글자를 벗어나지 못할 거야.”<sup>54)</sup>라며 자탄했던 것이다. 한 번 이원에 몸 담았던 이들은 “梨園”이라는 글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다. 이 때문에 극 중 해십일이 “극단에서는 나왔지만 결국은 소단이니, 토끼가 개로 변할 수 있겠는가?”<sup>55)</sup>라며 두금언에게 수작 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멸시는 소설 속 배우들을 수동적인 인물로 묘사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두금언과 소혜방은 이원 생활을 불행하게 여기지만, 이들이 이 불행한 생활을 위해 스스로 한 일은 없다. 모두 명사들에게 기대어 악적에서 빠져나왔을 뿐이다. 또한, 악적에서 벗어났음에도 이전의 감상자와 감상물의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소설 마지막 회에서 이원에서 벗어난 명단들이 명사들과 함께 모이는데, 이 때 명사들은 명단들에게 花史라는 봉호를 “내려준다”. 이에 반대하거나 반항하는 명단은 한 명도 없고, 오히려 “저분들이 우리를 화사라고 칭하였으니, 우리들은 저분들을 文星이라고 칭합시다.(他們稱我們爲花史, 我們就稱他們爲文星)”라며 명사들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다.

『품화보감』의 작가 진삼이 쓰고자 한 순결한 명사와 명단의 관계의 이면에는 선비의 우월감과 배우에 대한 멸시감 등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삼이 비록 자기모순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는 못했지만, 이원의 배우를 주인공으로 등장

53) 陳森, 『品花寶鑑』, 308쪽. “什麼東西, 小旦罷了, 那一個不是你的老斗. 有錢便叫你.”

54) 전개서, 637쪽. “就一年有一萬銀子, 成了個大富翁, 又算得什麼? 總也離不了小旦二字.”

55) 전개서, 856쪽. “雖然出了班子, 總是小旦. 兔子變成狗麼?”

시켜 당시 이원의 모습을 면면히 살필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4. 나가는 글

진삼의 『품화보감』은 청대 이원 생활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명사와 명단들 간의 진실한 감정 교류를 그리려 노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士人和 相公들의 관계를 크게 세 유형, 즉 작가가 적극적인 필치로 찬양하며 그려낸 士人 梅子玉과 名伶 杜琴言의 관계, 현실 생활 속의 이상적인 만남인 名士 田春航과 名伶 蘇蕙芳의 관계, 현실적인 이원의 모습을 반영한 豪客들과 黑相公들의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명사 매자옥과 명단 두금언의 관계는 흠잡을 곳 없는 재자와 가인의 이름다운 사랑이야기와 비슷하다. 차이점은 가인의 역할을 남자의 몸인 명단이 하고 있다는 것과, 이 둘 사이엔 세간의 애정보다 한층 더 위의 애정, 즉 육체적 접촉을 제외한 정신적 애정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정신적 애정 관계를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면은 소설 곳곳에서 나타난다.

둘째, 명사 전춘항과 명단 소혜방의 사이는 당시 청대 사회에 미답처럼 유행하던 장원부인 이야기를 모티프로 한 관계이다. 이들의 관계는 당시 가장 유행한 필추범과 이계관의 관계와 매우 흡사하며, 이는 또한 이전 시기 낙담한 서생을 기생이 물심양면으로 도와 입신양명 시키는 이야기와도 비슷하다. 이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들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였으며, 작가는 이를 적극 수용해 소설 속에 묘사하였다.

셋째, 호객과 후상공들의 관계에서 호객은 극보다는 배우의 요염한 자태에 목적이 있었으며, 배우 또한 이들의 입맛에 맞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들 사이는 진실된 감정 교류를 찾아볼 수 없는 철저한 상업관계였다. 이 때문에 진삼은 호객과 후상공들을 부정적인 인물로 그리면서, 긍정적인 인물 형상을 부각

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작가 진삼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명사와 명단의 관계를 서술하려 하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관계 또한 매우 불평등한 관계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런 서술은 선비들이 뻗속 깊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에서 기인하며, 선비들은 감상자의 입장에서 배우들을 감상하고 있었다. 호칭을 정리하고 정신적인 교류만을 하면서 배우들을 위해주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명사라고 불리는 선비들 또한 배우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감상물로 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작품 속에서 배우들은 선비들의 감상물이 되기 위해, 당시 사회의 심미적 취향에 부합하기 위해 여성보다 더 여성스러운 형상을 갖추어야만 했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갖지도 못하고 선비들의 결정에 따르기만 했다. 이러한 수동적인 배우 형상은 작품 속 여성 인물의 부재와도 관련 있으며, 이 때문에 작가는 자신이 생각하는 완벽에 가까운 여성상을 남성 배우의 몸에 투영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 편으로 작가는 배우라는 직업을 미천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작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배우들은 결말 부분에서 모두 악적에서 빠져나와 남성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으로 그려진다.

결국, 진삼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선비와 배우의 모습을 그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당시 사회의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모순에 갇혀 명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원의 배우들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는 점, 이원 생활을 면면히 살폈다는 점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陈森, 『品花宝鉴』, 上海古籍出版社, 1990.  
 张次溪, 『清代燕都梨园史料(正续编)』, 中国戏剧出版社, 1988.  
 袁梅, 『随园诗话』, 人民文学出版社, 1960.  
 赵翼, 『檐曝杂记』, 中华书局, 1982.

- 佚名,『燕京杂记』,北京古籍出版社,1986.
- 吴存存,『明清社会性爱风气』,人民文学出版社,2000.
- 朱一玄,『明清小说资料汇编(上,下)』,南开大学出版社,2012.
- 尚达翔,「谈反映梨园生活的《品花宝鉴》」,『南都学坛』第一期,1994.
- 陈静梅,「《品花宝鉴》的女性化叙事策略及性别政治」,『凯里学院学报』第二期,2011.
- 邱远望,「《品花宝鉴》在才子佳人小说模式之外的创新」,『江西教育学院学报(社会科学)』第五期,2005.
- 黄勇生,「男性情爱的想象与期待——论《品花宝鉴》」,『宜春学院学报』第一期,2008.
- 韓宗完,「〈品花寶鑑〉的社會描寫及藝術風格」,『中國人文科學』37卷,2007.
- 韓宗完,「중국의 동성애 문화와 〈品花寶鑑〉」,『中國人文科學』33卷,2006.
- 李受珉,「《品花寶鑑》小考」,『中國學論叢』21卷,2006.

〈Abstract〉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Literati and Female Impersonators  
in Qing Dynasty - Focused on "Pinhuabaojian"

Choi, Yoon-Ju

"Pinhuabaojian" written love story between literati and female impersonators of the Qing Dynasty in Beijing, with The novel has unique style, some people, and "Honglougong" in comparison. There are three main characters relationship, that is Meiziyu[梅子玉] and Duqinyan[杜琴言], Tianchunhang[田春航] and Suhuiyang[苏蕙芳], rich and Heixianggong[黑相公]. Each relationship has characteristics. First, Meiziyu and Duqinyan's relationship rooted in genius and beauty novels. Next, Tianchunhang and Suhuiyang's relationship is similar to traditional scholar and prostitute's story. Finally, rich and Heixianggong of the relationship reflects the operatic life, showing the real features of the society at that time. ChenSen[陈森] through these characters and relationships, on the one hand describes the real life, on the other describes the image of his ideal female impersonators. Through these relationship, we can see the relation

between literati and Female Impersonators in Qing Dynasty, and the author's narrative attitude. As a result, these description stems from a sense of pride that literati hold deep in their hearts. They were enjoying to the female impersonators. Therefore, female actors have more feminine characteristics and conform to the taste of society. These passive female impersonators are also related to the absence of female characters in the novel, so Chensen will be his ideal female image of an female impersonators. He also admits that the female impersonators are a humble occupation. So at the end of the story, the ideal female impersonators get away from their job, and regains the identity of the male.

Key Words: Pinhuabaojian, Play with actors, Female Impersonators, Homosexuality, Images of the characters

이 논문은 2017년 7월 17일에 접수되어 2017년 8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7년 8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